

HIRA ISSUE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핵심전략: 보건의료시스템의 균형과 회복탄력성 강화

윤은지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 키워드 | 코로나19(COVID-19), 보건의료시스템, 균형, 회복탄력성, 보건의료 위기 단계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 이하 코로나19)¹⁾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다.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는 250,051명, 사망자는 2,284명으로 현재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보건의료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최악의 경우 시스템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작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사례를 통해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보건의료시스템 균형을 위한 16가지 강화전략과 보건의료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별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WHO가 제시한 전략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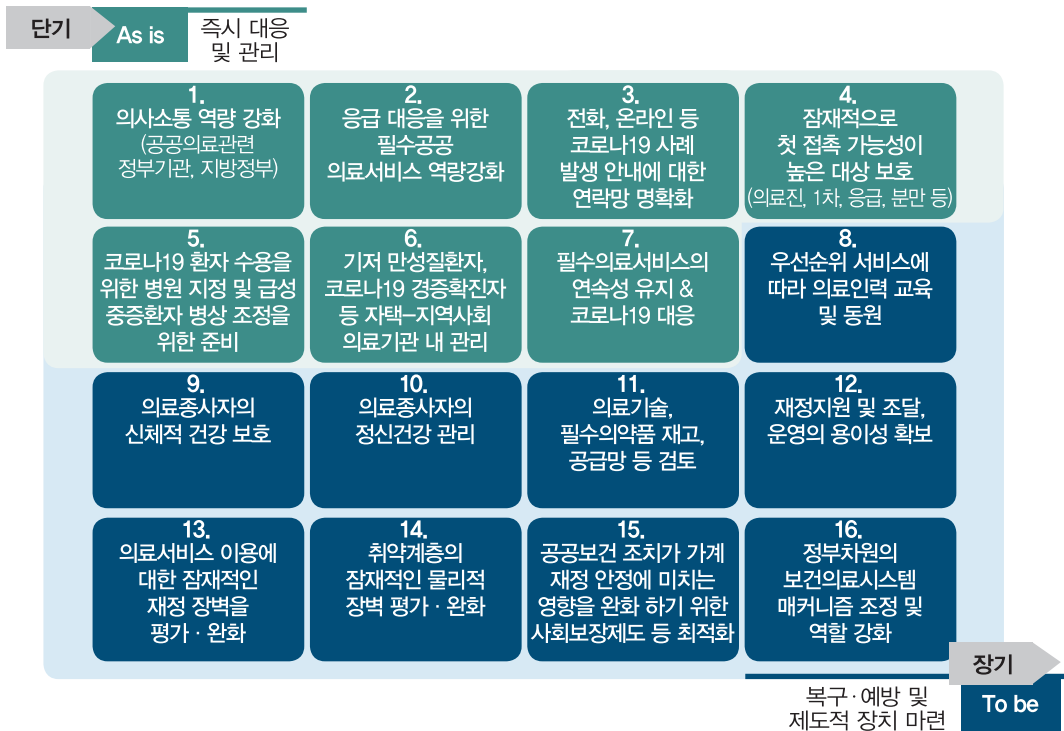
1) 코로나19 병원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SARS-CoV-2)

2. 보건의료시스템 균형을 위한 16가지 강화 전략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 대응과 장기 대응의 두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단기 대응은 외부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며, 장기 대응은 인프라 구축 등 제도 마련으로 대처해야 하는 역량이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기존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 병상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동시에 만성질환자·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관리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해야 하며, 정부-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 구축도 필요하다.

장기 대응의 핵심은 재정 유연성 확보와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고, 재정 조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료인력 보호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코로나19 응급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여 숙련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반 국민의 가계 재정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최적화 등 거시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다.



[그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6가지 보건의료시스템 권장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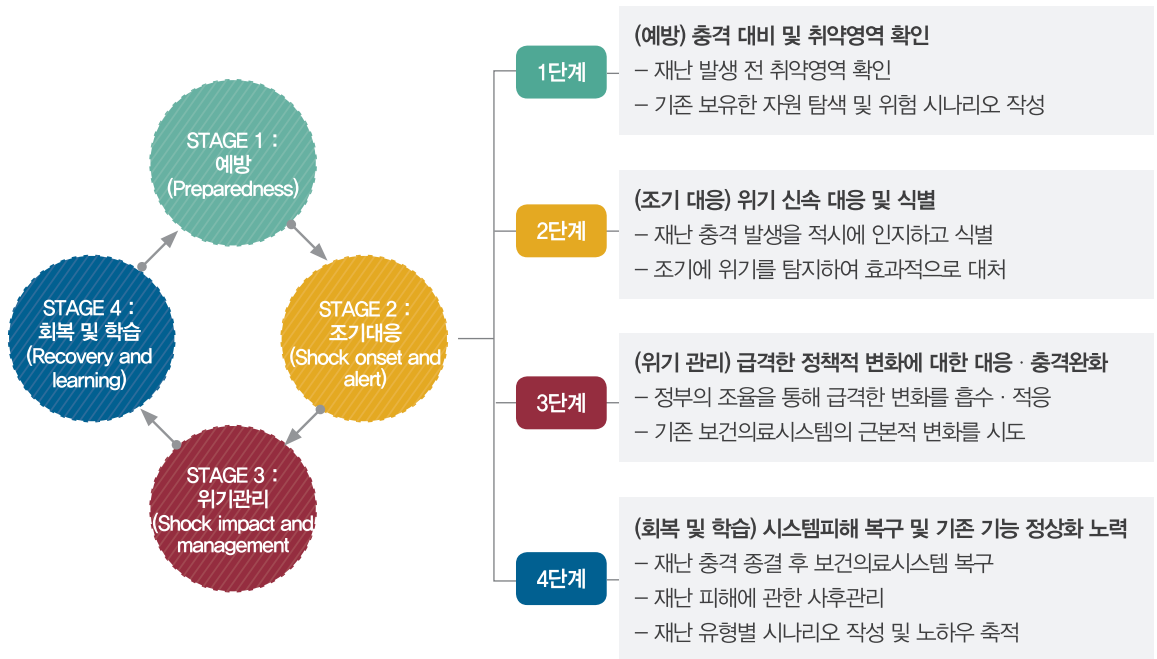
출처: WHO. Strengthening the health system response to COVID-19 Recommendations for the WHO European Region. 2020. 번역 및 재구성

3. 회복탄력성 유지를 위한 보건의로 위기 단계별 전략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쇼크(shock)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로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별 전략은 '예방-조기대응-위기관리-회복 및 학습'의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예방)는 보건의로 위기 발생 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취약한 영역을 확인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원들을 탐색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조기 대응)는 신속하게 충격을 인지하고 피해규모와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즉, 조기에 위기를 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단계(위기관리)는 재난으로 인한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흡수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회복 및 학습)는 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보건의로시스템을 복구하고 기존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한 사후관리와 과거에 경험한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으로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의로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그림 2] 보건의로 쇼크 주기의 단계(Stages of a shock cycle)

출처: Thomas S, et al.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resilience: key concepts and strategies. Policy Brief 26. Copenhagen: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in WHO. 2020. 번역 및 재구성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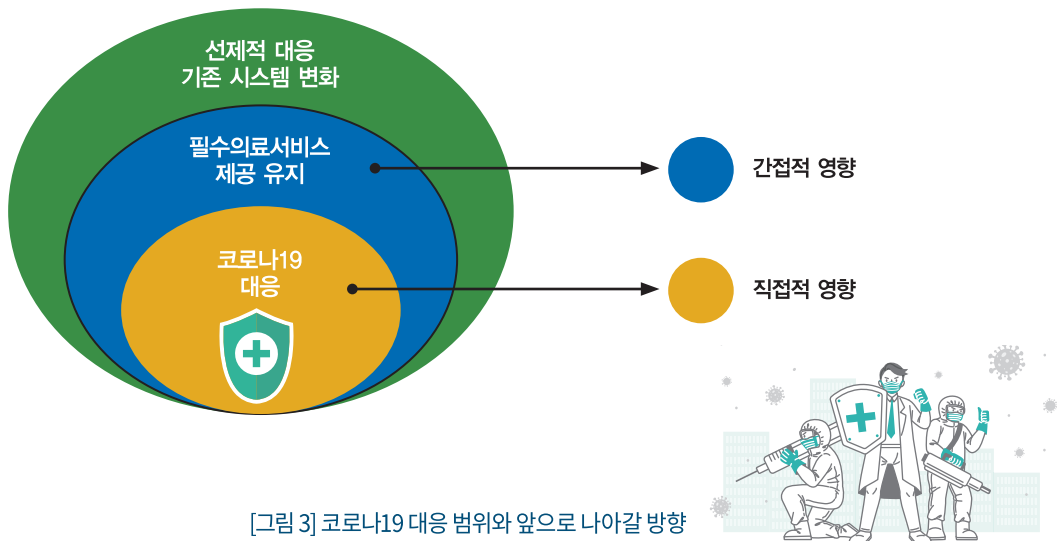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발판삼아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기존 코로나19 대응 전략인 병원 수용력(hospital capacities)의 확대와 환자 격리를 넘어,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즉, 보건의료시스템의 균형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어떠한 보건의료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 여러 가지 과제들 중 우리나라는 이미 단기적 대응 과제에서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예를 들면, 신속한 진단검사 도입, 정확하고 투명한 코로나19 정보망 구축과 의료자원 분배를 위한 생활 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 대응 과제의 해결은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민간 자원의 효율적 조직화와 시의적절한 인프라 동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자원 및 재정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 대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게 재정적 보상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등 포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즉각적 재정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자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여 수요변화에 상응하는 재정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예방 및 회복단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한 자원을 탐색하여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훈련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종결 후 회복을 위해 재난 피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사례 분석으로 개선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간접적 영향에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코로나19 대응 범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20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284개 → 467개) 대폭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신고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건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구조 · 구급활동 방해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주차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 부실시공 등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 · 진동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저작권 침해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 본사의 대리점 갑질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참고문헌

WHO. Strengthening the health system response to COVID-19 Recommendations for the WHO European Region. 2020.
Thomas S, Sagan A, Larkin J, Cylus J, Figueras J, Karanikolos M.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resilience: key concepts and strategies. Policy Brief 26. Copenhagen: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in WHO. 2020.
<https://coronaboard.kr/>(검색일자: 2021.8.31.)

HIRA ISSUE

발행일 2021.9.23.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발행인 이진용

HIRA ISSUE는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진의 견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Tel. 033-739-0963 | www.hira.or.kr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청렴한 세상

